

크레이그 키너 박사, 로마서, 강의 5, 로마서 2:1-3:23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로마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로마서 2:1-3:23의 5회기입니다.

나는 첫 번째 장에서 했던 것과 같은 수준으로 로마서를 모두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책에서 가르칠 때 종종 첫 번째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원할 경우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대해 그렇게 많은 세부 사항을 수행하면 코스가 매우 길어집니다.

이제 로마서 1장을 전제로 하는 로마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어떤 의미에서 로마서 2장에 대한 설정인데, 18절부터 시작하면 이방인들은 멸망합니다. 자, 이제 그는 실제로 모든 사람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로마서 2장.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당뇨병은 일반적인 강의 스타일이었는데, 이 섹션에서도 찾을 수 있고, 3장 1절부터 9절, 9장, 14절부터 24절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 가끔 사용되는 일종의 강의식 스토아학파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수사학적 질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상의 대화 상대가 있는 경우 누군가에게 직접 연설을 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자신의 입장에 반대하는 잠재적인 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주장을 펼치지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실제 대담자가 당신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꺼내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이 그 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회당에서 충분히 토론했기

때문에 아마도 다양한 주장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 3절의 대담자는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대담자가 명백히 유대인인 17절에서만 발생합니까? 글쎄, 아마도 그는 전체 장에서 동일한 대담자를 암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17절에 비추어 볼 때, 이전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돌아가서 전체 장을 그런 식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바울은 2절에서 우리가 아는 것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4절, 대담자가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제의 연속성도 있습니다. 2:9, 10, 12-15절은 2:25-29의 주제와 연속성을 갖는다. 그러나 첫 부분에서는 미묘하다.

풀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여전히 수사학적 함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2장 1절과 3절에서 그리고 9장 20절에서 그것은 여기서 a를 부르는 방법, 아포스트로피라고 불리는 수사적 관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수사적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29-31에서 죄인들이 암묵적으로 자신들을 정죄한 것을 봅니다. 그들은 그러한 행위가 죽음을 당할 만한 일임을 인식합니다. 그들은 더 잘 알고 있으며 둘, 셋, 다섯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나태한 이방인들은 변명합니다. 엄격한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정죄하는데, 2장 15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습니다. 이 언어는 이 맥락의 다른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서 그들은 변명합니다. 21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정죄하나 둘 다 죄인의 접근 방식이니라. 1:20 이방인들에게, 2:15 그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죄인의 두 가지 접근 방식은 모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울은 삼단논법을 만듭니다. 삼단논법은 대전제, 소전제, 따라서 결론이 있는 논증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죄를 범합니다(1절). 그러한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2절). 그리고 또한 1장의 마지막 절인 1:32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수사학적 함정입니다.

대부분의 사상가, 대부분의 도덕주의자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러한 불일치를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2장 17절부터 25절까지에서 불일치와 위선에 대해 보다 명시적인 도전을 할 것입니다. 여기 이 부분의 시작 부분에 있는 삼단논법은 14장, 3장, 4장, 10장, 13장에서 문화적 차이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그의 경고를 준비합니다.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글썄요, 그것이 죄에 해당된다면 다른 것에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2장 4절과 5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읽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회개할 여지를 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는 단순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유대인 청중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람들을 회개로 이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4.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자들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 대하여 바울은 무엇인가를 하늘에 쌓아 두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에 상을 쌓아 두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일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유대인의 외경인 토비트 4장에는 하늘에서 상급을 쌓아 두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서 이 사람들이 선동하는 것은 진노입니다.

절까지는 교차구조, 즉 교차구조가 있습니다. 때때로 당신은 그것을 교차라고 발음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정말로 과장했습니다. 그들은 사물을 고르지 않게 사용하여 성경의 모든 내용을 교차점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치 한 문단에서 한두 단어만 뽑아서 나중에 다른 단어와 비교하고 문단의 나머지 부분은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사물을 교차 구조로 강제할 수

있지만 이것이 더 설득력 있는 구조 중 하나입니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느니라.

그리고 2:11에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고대 문학의 주요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Chiasitic 구조를 가지려면 역병렬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의 음표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식으로 라벨을 붙입니다. 이것은 A이고 마지막 부분은 A 소수입니다.

다음 음표는 B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B 프라임이 있고 중간에 c가 있거나 c와 c 프라임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글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A, B, B, A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6절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며 11절입니다.

7절과 10절입니다.

7절,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자에게. 10절,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가 있느니라.

그리고 중간에 8절과 9절에는 진리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진노가 있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느니라.

그래서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의 일부이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의로운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분은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음, 그것이 여러분이 1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느니라. 그리고 그분의 진노는 우상을 따르고, 비방과 자랑 등 온갖 죄를 짓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민족적 공평성, 2장, 6장, 11장. 음, 2장, 9장, 10장에서는 그분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심판하실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장 12절부터 15절까지는 모세의 율법을 가진 자들과 자연법만을 가진 자들을 가리킵니다.

더 큰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더 많은 책임을 집니다. 앞서 인용한 아모스 3장과 2절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을 택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죄악을 심판하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도 가르치실 때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인의 뜻을 모르고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매를 덜 맞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그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것은 교회에서 성장한 사람들이나 복음과 가르침을 더 많이 들어본 사람들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2.12~15, 3.20, 7.7~11은 더 잘 알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판단하세요. 법을 알면 법을 준수하는 데 더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모두가 공정성을 인정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그것이 신이 존재하는 올바른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자주 언급했지만, 일반적으로 민족적 용어로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글쎄, 그는 우리를 판단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방인을 판단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영생을 위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학자들이 자주 논쟁하는 내용이다. 음, 맥락상 3.9와 3.23은 인류 전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구절에 대해 주어진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로운 이방인, 간음하지 않는 사람, 성적으로 부도덕하지 않은 사람을 생각할 때와 같은 실제적이지만 작은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글쎄요, 그들은 이방인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종종 하나님께서 회당이나 다른 곳에 오기를 두려워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실제이지만 매우 작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거나 아마도 수사적 목적을 위해 아마도 10장과 5절과 같은 가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살 것이며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썄요, 당신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정당화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과 11절. 또는 제안된 세 번째 가능한 견해는 그것이 기독교인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9절에서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점이 가장 좋은가? 좋아요, 여기에서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최고의 전망을 말할 때 그들이 의미하는 바는 그것이 그들의 견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앞으로의 강의에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나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본문을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관점이 가장 좋은가? 원칙적으로 의인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실제로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8장 2절부터 4절).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요점은 하나님의 민족적 공평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진노를 쌓습니다(2장과 5절). 이방인들은 적어도 때때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때때로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이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아마도 우리를 포함하여 항상 이 일을 이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그의

이미지에 더 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양심의 자연법은 모세의 외적 법처럼 기능합니다.

그것은 멀리 가지도 않고 많이 드러내지도 않지만 우리의 죄 중 일부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은 모세의 율법과 같이 죄를 식별할 수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다음 차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2장과 7절에서 선한 일을 합니다. 글쎄요, 이것은 율법 3:20, 27, 28에 따른 유대인의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의인은 견디고 신자는 견뎌냅니다. 의인은 영광을 구한다 2:7.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3:11. 잘못된 길에서 의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10장 3절과 20절. 의인은 영광과 존귀를 구합니다(2:7, 10).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습니다(3:23). 영광은 다양한 구절에서 신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인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의인은 평화를 누리리라.

글쎄요, 인류는 평안을 알지 못하지만(3:17), 신자들은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5:1, 8:6, 14:17). 의인은 선을 행합니다(2:7, 10). 악인은 율법이 있어도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7:18, 19). 신자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12:9, 21).

선을 행하는 자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모두 포함됩니다 2:10. 3:9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 죄 아래 있으며, 믿는 자의 공동체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포함됩니다(1:16, 9:24, 10:12). 순종하는 이방인의 마음에 있는 법은 본질적으로 2:14-15. 여기서의 견해는 이것이 마음에 법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하거나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양심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킨 8장 2-4절에서 율법이 있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부로 우리 마음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하는 2:29을 준비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기록된 율법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사람들은 율법이 글로 있지는 않지만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을 것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인간에게 내재된 자연법입니다.

1장 20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와 창조는 이 계시를 그들 자신 안에 가지고 있거나 그들 사이에서 의미할 수 있지만 인간 내부를 포함하여 그들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1장 19절). 그리스-로마의 양심 개념, 9장 1절에서. 내가 두 가지 견해를 모두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아마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연법칙 견해는 그리스-로마 자료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1장 26절과 27절에서 자연에 기초한 논증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유대 사상가들도 노아의 율법을 말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자연의 법칙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고대에 아주 많은 자료에 널리 퍼져 있던 개념입니다.

2장 15절에서 그는 그들의 생각이 분열되어 궁극적으로 그들을 고소하거나 옹호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7:15부터 23까지에서 여러분이 얻게 될 일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옳은 것을 행할 수 없는 도덕적으로 분열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법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위선을 고발함(2:17-24). 이것은 극단적인 과장법이다.

나는 이미 그것을 환원 광고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요점을 주도합니다. 그것은 극단적으로 걸립니다.

그것은 고대에 당신의 요점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수사적 방법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성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았으며, 특히 성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유대인 민족성과 율법 소유가 이방인보다 우월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모든 유대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상상 속의 대화 상대인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

어떤 이방인들은 자연의 법칙 때문에 옳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옳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유대인 반대자, 이 가상의 대담자는 율법의 중요성을 서너 번 주장합니다.

2:17 율법을 자랑함, 2:18, 2:22, 2:23. 그런데 이 대담자는 법을 어겼습니다. 2장 23절은 토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토라 공부는 유대인 교사들의 경건의 중심이었습니다(2:17-20).

우리는 그것이 여기에서 중심이라는 것을 발견하지만, 그것은 또한 유대인 교사들의 경건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적, 영적 자부심과 같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졸업할 때 우월감을 갖고 졸업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미나리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며, 이 비디오는 여러분이 유능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에 대한 만족, 그것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선물이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적, 영적 자만심의 위험은 토라 교사들에게는 위험이었지만 유대 민족에게만 국한된 민족적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적 지식 등을 자랑스러워하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천의 실패나 우리 삶의 다른 영역에서의 실패에 대한 걱정을 줄이기 위해 그러한 능숙함을 사용합니다.

고대인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활동을 자랑하는 것이 죄였습니다. 3:27, 4:2, 5:2-3, 5:11, 15:17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계속 돌아오네요. 자랑은 하나님 대신 우리에게 초점을 두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미묘한 암시입니다.

2:17-24 의 수사학을 보십시오. 바울에 대한 반대자이자 가상의 반대자인 대담자는 17-20절에서 11가지 경건한 유대인의 주장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다섯 가지 수사적 질문으로 도전받습니다. 그것은 법정 수사에 국한되지 않고 종종 법정 수사에 속하지만, 당신은 그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다양한 질문을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을 요점으로 물고 그들이 잘 대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21-23절에는 다섯 가지 수사학적 질문이 있습니다. 각 질문은 대조라는 수사적 장치를 사용하고 두 가지를 대조하며 아나포라도 사용합니다. Anaphora는 병렬 언어로 시작하고 끝나는 곳입니다.

글쎄요, 특히 아나포라(anaphora)로 시작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표현으로 표현하면 하나의 문장에 x 점, 점, 점, y가 있습니다. 다음 문장에는 x dot, dot, dot, y가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과 끝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권위에 대한 수사학적 호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2장 23-24절의 명백한 증거 본문으로 과장된 위선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요점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 가상의 대화 상대를 평준화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율법의 의는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2장 17절에서 당신은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주장합니다. 글쎄요, 2.29의 참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녀(4:12, 16:17), 그리고 11:17의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함(2:17-23). 그러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참된 자랑은 5:11에 있고, 그것을 위한 준비는 5:2-3에 나와 있으니 나중에 살펴보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기뻐하며, 2:18 . 글쎄요, 오직 12장 2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알고 선한 것을 기뻐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둠에 있는 이들에게 빛이요, 2:19 자, 우리는 어둠의 사람들이 아니라 빛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13:12). 이 사람은 2장 20절에서 율법의 선생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6장 17절, 12장 7절, 15장 4절, 16장 17절에서 가르침의 올바른 사용을 봅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과 진리가 있는 것(2:20)이 바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은 15장 8절과 14절에 나타납니다. 여기에 있는 죄 중 일부인 성전 강도(22절)는 종종 불경건의 전형이었습니다. 이방인. 이방인들은 이렇게 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믿었고, 절을 더럽히고 절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사람들을 신들이 심판한다는 이야기도 많았다.

많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이교 사원을 신성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변증가들은 이 사실을 당연히 부인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사원을 강탈하면서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나는 아이돌을 반대하지만 그는 아이돌을 피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과장된 상대가 있습니다. 그는 신전에 가서 우상을 흠쳐서 녹이거나 뭐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23절과 24절)은 종종 유대 민족의 불경건함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에서 잘 알려진 위선적인 유대인의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한 세대 전에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 사기꾼이 있었는데, 그는 로마 여자들을 착취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외국 종교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아내를 개종시키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에는 난로 주변에 로마 가정 종교가 있으며 아내를 개종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는 로마 여성들을 착취하고 예루살렘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폭로되었고 외국인을 혐오하는 로마인들은 너무 화가 나서 유대인 공동체 전체가 추방되거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Josephus의 Antiquities(1881~84)에서 이에 대해 읽습니다. Tiberius는 한 세대 전에 로마에서 유대인 공동체를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실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유대인의 특징은 아니지만 이런 종류의 과장된 유대인은 실제로 이런 사람을 염두에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것이 교회 권징의 한 가지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외부인들은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반응했던 것과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다르게 살아보세요.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것을 믿을까요? 그 중 일부는 내가 명목상의 기독교인과 실제 기독교인을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리고 이것은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그가 성경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수사학적 충격입니다.

그가 인용한 이사야서 52장 5절의 문맥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의 고난으로 인해 모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그들의 죄로 인해 유배되었습니다.

에스겔 36:18~20 등. 바울은 이사야 52장 5절을 이사야 52장 7절에 나오는 많은 백성들이 좋은 소식을 거부한 것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로마서 10장과 15절에서 이 내용을 인용합니다. 그는 여전히 문맥을 알고 있으며 전체 문맥을 알고 있습니다. 단 두 구절만 알고 있습니다. 끄다.

그래서 25절부터 29절까지 그는 내면의 유대인에 대해 말합니다. 유대성은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가치가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더 잘 알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어떤 이방인들은 언약을 더 잘 지킨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들은 법에 포함된 내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법의 도덕적 요구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여전히 이웃에게 친절합니다. 그리고 일부 유대인들은 이웃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 중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일이 행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당에 소속된 할례받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흔히 율법에 규정된 가치관과 같은 유대인의 가치관 중 일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떤 이방인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령을 소유한 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영예를 돌리는 일입니다. 2장 29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으며 7장, 5절과 6절, 8장과 9절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영적 할례를 말씀하십니다. 그는 25절에서 마음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레위기 26:41, 예레미야 4:4, 예레미야 9:25, 26에서 마음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바울은 또한 개종자들, 개종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주장합니다(2:26). 할례는 이방인들에게 큰 장벽이었습니다. 많은 로마 이방인들은 이러한 관행에 대해 유대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합류하기를 원하는 이방인 남자들에게 주된 장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른에게도 꽤 고통스럽고 아마도 아기에게도 꽤 고통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기들은 보통 8일째에 일어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 이방인 신자들은 4장, 16절, 11장, 17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유산에 접붙여졌습니다. 할례에 대한 강조는 성경 본문에서 꽤 드물게 나타나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타나다.

창세기 17장, 언약의 표징. 집안 식구 중 누구든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너희 중에 거하는 자마다(출 4:26) 모세가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을 당하리라.

레위기 12:3, 아기에 관해 이야기하고, 여호수아 5:2-8, 음, 그들은 광야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은 할례를 통해 언약을 갱신합니다.

상징적인 식별입니다. 할례가 그 자체로 일종의 영적인 효과를 갖는 것처럼 그것이 존재론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시되는 방법입니다. 광야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 전에는 모세의 자녀들도 할례를 받지 않았고, 그의 아들들도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과의 신분을 증명하는 한 형태로서 의무적이었습니다. 이는 특히 최근 몇 세기 동안 국가 정체성의 특징으로 강조되었는데, 부분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이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가치있게 여겨지는 다양한 종류의 경계 표시로 인해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만일 어머니가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면 그 자녀를 어머니의 목에 달고 둘 다 예루살렘 성벽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고집했기 때문에 매우 끔찍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글쎄, 그것이 당신 조상의 일부라면 확실히 당신은 그것을 계속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충성의 표시로 생각할 것입니다. 경주에서 그리스 방식으로 벌거벗고 달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할례 때문에 누구도 조롱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포피를 앞으로 당기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마카베오 시대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언약에 신실한 증거 중 하나는 무할례가 아니라 할례를 지키는 것이니라.

그러나 구약성경에서는 영적인 할레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16, 신명기 30:6, 레위기 26:41, 그리고 우리가 언급한 다른 구절들, 에스겔 44:7과 9에 나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할레는 외적인 상징의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그냥 표지판. 그것은 언약의 외적인 표식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표식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할레를 받거나 할레를 받지 않도록 요구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사람들을 언약에서 멀어지게 할 필요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서도 경고한다. 고린도전서 7:18, 19, 갈라디아서 5:6, 갈라디아서 6:15. 그가 속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 29절에서 약속된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가납됨을 확증한 사도행전에서와 같이.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셨다면,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구약성서에서 종말론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면, 성령의 부으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으로 받아들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으로 할레받은 자로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적으로 그의 언약의 일부로, 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모형을 따르는 자로 여기신다면, 외적인 표시는 그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하게 됩니다. 인종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칭찬을 구하는 진정한 유대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9절, 2장, 7장, 10장의 의로운 사람들처럼. 여기에는 아마도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말장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풀은 가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는 이 큰 영광의 중한 것을 말합니다. 글썄요, 히브리어로 카보드는 우리가 영광이라고 번역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무게나 무거움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유다라는 이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음, 창세기 29장과 49장의 70인역에서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유다는 찬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유대인은 하나님께 칭찬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29절.

그리고 그는 또한 대조되는 정신과 문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7장과 6절에서 그 내용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여기서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많은 맥락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루려고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3장으로 넘어가서 그는 누가 진정한 유대인인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합니다. 속으로는 유대인인 사람. 그래서 그것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유대 민족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어떤 가치가 있나요?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그렇죠. 그는 민족적 차별이나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신정론과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상의 대담자의 수사적 질문과 반대는 그가 이 시점에서조차 여전히 비난 형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가 방금 2:25-29에서 주장한 것에 대한 명백한 반대가 있습니다. 유대 민족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반대, 그 질문은 3장 1절에서 제기됩니다.

어떤 것의 가치나 어떤 것의 이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질문은 고대 수사학과 윤리학, 수사학 핸드북, 철학 저서에서 정기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물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중 하나는 어떤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유익한가입니다. 그렇다면 유대 민족의 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반응은 더 큰 기회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역할을 했거나 구원 역사에서 특별한 역할을 했습니다.

9장 4절과 5절, 11장 12절과 15절, 미래를 내다보며. 또한 그들은 가장 분명한 계시인 성경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3장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방인보다 큰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선 3장 2절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로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교수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정말 멍하니 있지만, Paul이 나중에 이 문제를 다룰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는 9장 4절과 5절에서 유대인의 장점을 포착합니다. 1장 8절에서도 그는 처음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항상 그것을 다시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가 대답해야 할 두 번째 반론인 3절의 이스라엘의 믿음의 부족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유대인 교사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하든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그의 자녀로 여기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구약성서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방식으로 논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3장 4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은 범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언약의 신실하심은 그분의 의와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재판관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형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형벌하실 때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악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냥 '여기가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항상 이스라엘의 의견에 동의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류의 항의는 정죄되었습니다.

바울은 3장 4절에서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그 표현은 칠십인역 시편 116편 11절이나 115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특히 3장 13절의 죄 없는 본문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특히 유대인이나 유대인 축제를 기념했던 사람들에게 친숙했을 것입니다.

Paul의 핵심적인 이상적인 청중은 그가 의미하는 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이상적인 청중이 포착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포착하는 것은 아니지만 Paul은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할렐에서 온 것입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 시편 116편을 인용했는데, 이것은 할렐이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유월절 절기에 정기적으로 불렀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그는 시편 기자가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시편 51장 4절을 인용합니다.

나는 유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편의 머리글입니다. 그리고 그 표제는 바울 시대에도 존재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게 될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에서는 행위 없이 다윗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반론은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3장 5절과 7절입니다. 이 대담자는 이제 절박해지고 있으며 Paul은 그를 정말 터무니없는 귀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사 세상을 심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순종한 백성을 심판하실 때에도 의로우십니다. 8절에 나오는 대담자의 주장의 효과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짓자입니다.

좋은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의를 처리하심으로써 이를 행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십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한 바울 자신의 가르침을 왜곡했습니다. 그것은 죄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인 바울은 의로운 사람이 의롭게 살 수 있다는 동사가 같은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6장에서는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21절,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주장합니다.

3장 9절부터 20절. 하나님은 그의 언약에 신실하시다.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3년, 9년부터 20년까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유대인들은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라를 따라 그들의 과거를 되돌아볼 때 이스라엘이 종종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글썬요, 바울은 다양한 본문을 연결하려고 하는데 공통 키워드나 문구, 개념이나 문맥을 사용하여 본문을 연결하고, 단어를 연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공통 키워드를 기반으로 텍스트를 연결하는 관행을 게셀 하샤바(Gezer HaShavah) 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대부분의 동시대 사람들보다 더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며 여기에 여러 본문을 연결합니다. 그는 죽음, 3, 13, A, C, 그리고 15부터 17까지의 텍스트를 함께 연결합니다.

이것은 또한 5:12, 14, 17, 21의 주제이기도 하다. 6:16, 21, 23, 7:5, 10, 13, 24, 8:6. 그는 죽음에 대해 많이 이야기할 예정이지만, 그는 이미 13, 15, 16, 17절에서 인용한 구절에서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인용한 대부분의 구절은 신체 부위를 암시합니다.

이것이 그의 Gezer HaShavah 에 대한 연결입니다 . 18절의 눈, 15절부터 17절의 발, 그리고 우리가 죄에 관해 이야기할 때 가장 광범위하고 놀랍지 않게도 13절과 14절의 입입니다. 신체 부위에 대해 언급하는 그의 사용은 이 책의 뒷부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 몸의 지체와 육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6:6, 7:5, 7:24, 25, 8:10, 8:13). 골로새서 3장 5절 등에서도 이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에서 자신의 원칙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선 그는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를 인용하는데, 1절과 3절에서 두 개의 동일한 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구절 모두 친절을 말했기 때문에 첫 번째 부분을 바꿉니다. 바울은 첫 번째 친절을 의로운 것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로마서 1장 17절 등의 더 넓은 맥락에서 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요점과 일치합니다.

글쎄요, 친절한 사람이 없다면 의로운 사람도 없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는 또한 시편 5:9, 시편 140:3, 시편 10:7, 이사야 59:7 및 8,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36:1을 인용합니다. 이제 이들 중 대부분은 분명히 시편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일한 예외인 이사야 59장 7절과 8절은 이스라엘 전체에 적용되는 유일한 절입니다.

이 본문들 사이 또는 동시대 유대인들이 이해했을 본문들 사이에 미드라시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은 방법을 사용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경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이 일을 선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율법 3장 19절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장 큰 지식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3:19 에서 정죄함. 그런데 율법은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음, 법이 실제로 말하는 걸까요? 그러나 여기서 그는 법이 개인으로서 행동하고 법이 이러한 것을 말하는 프로 소포페이아(prosopopeia) 또는 의인화 와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단지 모세의 책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는 모든 입, 이미 죄 많은 입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19절에서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입은 심판 때에 잠잠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3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반대하는 사람은 심판 날에 논쟁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리라.

그는 율법이 사람들의 죄성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3장 10절에서 18절에 예시된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시편 143편 2절을 언급합니다. 거기서 시편 기자는 살아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 완벽해서, 다른 길이 없으니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20절)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할례와 같은 유대인의 정체성의 표시로 특별히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4장과 14장에서 이러한 정체성 표시를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모든 율법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전반적으로 더 나은 주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새로운 관점인지 오래된 관점인지 묻는다면, 지금쯤 여러분이 그러한 범주를 알고 계시다면, 제가 각 주장에서 가능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모두가 특정 입장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한 번에.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모두 법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들이 더 나은 주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에 관한 성서 본문에서 히브리어로 일은 명사 형태의 행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법을 준수하는 것에 관한 텍스트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는 율법에 관한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이는 법 전체를 포괄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특징이 이 사례를 특히 잘 예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할례, 음식법, 성일과 같은 유대인의 특징에 호소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특징은 이방인 개종자들이 채택하기 위해 가장 열심히 노력해야 할 특징이었습니다. 실제로 할례는 바울이 과거에 다루어야 했던 일부 사람들에게 매우 큰 문제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부터 12절,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11절,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5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에서는 할례가 큰 문제입니다. 모두를 위한 Paul의 솔루션.

그는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몇 년 전, 우리는 무엇에 관해 성경 공부를 할 것인지 결정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우리는 책의 한 장을 읽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로마서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글썄, 우리가 인간의 타락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전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처음 몇 주는 상당히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더 즐거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오늘날 종교인이나 비종교인, 기독교 배경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나는 또한 종교적인 면에서 설교할 때 가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제가 말하는 모든 것에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유대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불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 3:21-31

그는 이미 3.9부터 20까지에서 인류가 죄를 지었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길을 만드십니다. 3:21~31, 3:1~8의 비슷한 개념. 율법은 죄를 드러냈지만 3장 20절에서는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는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법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7장 7절과 14절에서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법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민법도 당신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민법은 죄를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법은 그렇게 했지만 결코 자기합리화의 수단으로 이용될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의롭게 되는 길을 가르친다고 21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방법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취를 자랑함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 즉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에게 이를 지적합니다.

3.27과 31. 그리고 구원 역사의 이 단계에서, 역사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믿도록 권유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 말은,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믿기 때문에 모세야, 나는 네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가 이삭이라는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 정말 그랬어요.

그 사람은 우리 조상이에요. 난 네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모세. 그렇게 하면 모세 시대에 하나님과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 역사의 이 단계에서 믿음은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사역을 정점에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이미 그 주제가 1장과 17절에서 소개되었지만 여기에는 그 내용이 모아져 있습니다.

3.22, 25, 26에서 그는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고대의 수사법은 요점을 파악하기 위해 반복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알기 위해 수사학 훈련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말은, 당신은 그 말을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반복하면 포인트가 생깁니다.

동족사 dikaiio 와 dikaiosune , 의로움이 있습니다. 동족 동사 정당화 또는 바로잡기가 있습니다. 3:24, 3:26, 3:28, 3:30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는 이것이 분명히 강조됩니다.

3장 20절의 율법의 행위로 인해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은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22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 읽었고, 3장 26절에서도 읽습니다. 이 헬라어 문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주관적 소유격, 그리스도의 믿음 또는 그리스도의 신실함, 또는 객관적 소유격, 즉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며, 그리스도는 소유격의 목적어입니다. 속격은 기술적으로나 문법적으로 어느 쪽이든 갈 수 있습니다.

글쎄요, 주관적인 소유격을 선호하는 우리는 이 문맥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3장과 3절에는 평행 표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이 장 앞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주장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믿음은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또한 유사점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이에 대한 또 다른 상당히 강력한 주장입니다. 3장 26절에 있는 예수의 믿음과 4장 16절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 사이의 유사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주장해 왔습니다. 이는 칼 바르트(Karl Barth)와 리차드 헤이즈(Richard Hayes), 모라 후커(Mora Hooker), 그리고 상당수의 학자인 NT 라이트(NT Wright)가 주장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일종의 아방가르드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를 꼭 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내가 보기에는 증거가 다른 방향으로 지적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학문은 이것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내려온 목적 속격을 선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군가 내 마음을 곧 바꾸지 않는 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명사는 신자의 믿음을 가리키는 3장 22절의 동사와 연결되어 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에는 동족 동사가 42번 나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은 믿음의 주체나 모형이 아니라 대상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은 예수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생각에 이것이 로마서의 맥락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사는 로마서 4장의 바로 다음 문맥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로 6번 사용되었습니다. 글썄요, 왜 소유격 구조를 사용하거나 그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왜 그것은 믿음이고 문법적으로 충분히 모호하여 믿음 또는 믿음일 수 있는 것입니까? 왜 그 구조를 사용합니까? 아마도 그가 대조하고 있는 구조, 즉 율법의 행위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소유격을 사용하므로 여기서도 소유격을 사용합니다.

피츠마이어 를 포함한 교부들 사이에서 대다수의 견해였습니다. , Moo, Schreiner, Tobin 등이 문제의 양쪽에있는 가톨릭 및 개신교 학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 좀 더 전통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믿음과 율법 사이에는 대조가 있습니다. 22절의 믿음, 20절의 율법은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유대인과 같은 용어(22절)를 비교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23절).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에 동의했습니다. 내 말은, 그들은 예외를 둘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들 모두는 그렇게 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랍비들은 그들 모두가 죄를 지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사실, 때때로 그들은 어떤 일을 한 일부 랍비들의 순전히 설교 목적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랍비 아키바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장한 사탄을 보고, 사탄이 종려나무 위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 아키바는 종려나무에 올라 꼭대기에 가까이 다가갔고, 사탄은 변장을 벗고 말했습니다. 맵소사, 내가 당신을 차서 죽게 만들겠습니다.

글쎄요, 아마도 맞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요점은 모든 사람이 때때로 위험한 상황에서 야자수에 올라갈 정도로 죄를 지었다는 점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논쟁거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24절과 25절에서 의로움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만 온다고 말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23절에서 죄를 지었다는 부정과거 시제 때문에 아담에 대한 암시를 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부정과거는 때때로 엄밀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어느 시점에 이런 죄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아담의 죄입니다. 그러나 최근 그리스어 연구에 따르면 부정과거를 항상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정확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행동을 바라보는 방식일 수 있고, 어쨌든 그것이 꼭 아담의 죄일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그것을 다음의 관점에서 전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 그러나 바울은 2장 12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언급하면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여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중에 5장 12절, 14절, 16절에서 아담의 관점에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성된 인류는 그 영광을 잃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3, 고린도전서 11:7, 그리고 그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됩니다(롬 8:18, 21, 29).

아담에 대한 암시가 있습니까? 글쎄, 그는 나중에 말할 내용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그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기서 그 점을 강조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우리가 구체적으로 동사로부터 그것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부 학자들은 24장과 25장의 일부에서 바울 이전의 전통을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신조나 찬송으로 봅니다. 제가 이것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1장 3절과 4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신조의 진술이나 찬송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용어 중 상당수는 바울에게서는 드물며, 다른 신약의 신조에서도 문법적 요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일반적으로 송고한 산문의 송고한 수사적 스타일에 적합합니다. 사람들이 신들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일반적인 그리스 찬송가에는 운율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리스 찬송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바울이 직접 작곡한 걸까요? 그는 확실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사적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에 대한 예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작곡하였는지, 아니면 단지 이 형식으로 널리 유포된 어떤 가르침을 사용하였는지, 그것이 그에게 독창적이던 아니던, 그것은 바울의 견해를 반영하며, 그것이 바로 그가 그것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나머지 셋, 넷, 다섯에서 보게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를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의로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로마서 2:1-3:23의 5 회기입니다 .